

호남선KTX 개통 후 첫 명절...1시간 빨라진 추석 고향길

귀성객 늘고 관광객 몰려온다

열차표 예매 30분만에 매진 지난해 추석보다 10편 늘려 광주 렌터카 문의도 잇따라

호남선 KTX 개통(4월 2일) 이후 첫 명절인 올 추석 연휴에는 KTX를 타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함께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송정역 구간 소요시간이 1시간 줄어든데다 나흘간의 연휴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코레일이 지난해 추석에 비해 하루 평균 좌석수를 4000석 이상 대폭 늘렸지만, 추석 열차표 예매 시작 30분만에 주요 좌석이 매진됐다. 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렌터카 업체에도 관광객과 성묘객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KTX 개통 후 첫 명절...30분 만에 매진=2일 코레일에 따르면 호남선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진행된 이날 용산~송정역 열차편의 주요 좌석이 예매가 시작된 지 30여분만에 동났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인터넷 예매는 탑승객들이 선호하는 일자와 시간대의 경우 불과 10여분만에 매진됐다. 9시부터 현장 예매가 이뤄진 송정역 등 주요 기차역에도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승차권 예매는 인터넷 70%, 현장(역) 30% 비율로 나눠 진행됐으며, 남은 승차권은 3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첫 명절인 것을 감안한 코레일 측은 이번 연휴 기간 임시 증편 6편을 포함해 하루 평균 54편의 KTX를 투입하기로 하고 총 15만 좌석(5일 기준·1일 3만석)을 준비했는데 수요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코레일 측은 지난 추석 연휴엔 임시 증편도 없이 하루 평균 44편, 좌석수로는 15만여석(6일 기준·1일 2만5000석)을 마련했었다.

코레일 광주본부 측은 "KTX 개통으로



호남선 추석열차 승차권 예매가 진행된 2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송정역에서 시민들이 승차권을 구하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이날 인터넷(코레일 홈페이지)과 현장(역) 예매에서 주요 좌석이 매진됐으며, 잔여좌석은 3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향 가는 길이 1시간 빨라져 귀성객이 대폭 늘어났는데다 짧지않은 4일간의 연휴를 맞아 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도 덩달아 가세하면서 예매 열기가 예년보다 뜨거웠다"고 분석했다.

◇빨라진 고향길...귀성·관광객도 늘겠지만=코레일 측은 연휴 기간 호남선 KTX 이용객 15만여명 중 80%가 송정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묘, 차례, 고향집 방문 등 전통적인 명절 풍속이 수그러드는 추세인 만큼 이용객 중 상당수는 연휴를 맞아 여행 등 관광에 나선 탑승객들이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추석 명절이 포함된 9월로 접어들

면서 KTX가 정착하는 송정역뿐만 아니라 광주지역의 렌터카 업체에는 연휴기간 차량을 빌리려는 문의도 시작됐다.

렌터카 업체들의 경우 지난 4월 KTX 개통 이후 '송정역 차량 배달·수거'라는 영업 전략을 세우고 인터넷 포털, 현수막 등 가리지 않고 홍보를 벌여온 탓에 추석 4주가량 앞뒀지만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광주시 북구에 사무소가 있는 렌터카 업체 오션렌트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서울, 부산 등 외지인을 중심으로 '추석 연휴기간 KTX를 타고 광주를 찾으려는데 요즘이 얼마나, 연휴기간 정상 영업하느냐' 등 문의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연휴기간 남도지역을 관광하러 하거나, 일이 바빠 하루 이를 일정으로 조용히 성묘만 하고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KTX를 이용한 귀성·관광객은 급증하지만 여전히 연계 교통편은 미흡, 올 명절에도 불편을 감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송정역을 오가는 심야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2개 노선에 불과하고 화순 등 전남지역을 오가는 버스(광천동)도 밤 10시를 전후해 끊기기 때문에 귀성객 상당수는 택시를 이용하거나 고향집에서 마중 나가야하는 형편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챔피언스필드 소음문제 법정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 732명 손해배상 제기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소음 피해(광주 7월29일 6면)와 관련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광주시 북구 임동 한국아파트리움 아파트(1차) 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2일 광주지방법원에 주민 732명의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에는 아파트 4개 동 340세대 중 72%인 246세대가 참여했다.

준비 청구 액수는 확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소음과 야구장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교통난 피해 등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과 검증 절차를 거쳐 피해 규모가 나오면 액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청구 기간은 2014년 3월 기야챔피언스필드 개장 이후부터 최근까지다.

대책위는 광주시와 KIA 구단이 기존 무등경기장보다 더 가까운 100여m 거리에 세 배나 큰 2만7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신축하면서 정작 소음 및 교통대책 마련은 소홀히 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한표 대책위원장은 "애초 주거지역에 3만 명이 들어가는 야구장 신축 허가를 내준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입지선정과 교통영향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제대로 감사해 광주시 공무원이나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와 구단이 스피커 사용대수를 줄이고 주변에 옥외주차장 4곳을 조성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경기장 주변에 차량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소음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승소 여부와 배상액 규모를 떠나 경기장 주변 주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도 올 겨울까지 서류준비를 마치고 광주시와 KIA 구단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학교 5일에 한번 꼴 성범죄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에서 5일에 한 번 꼴로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광주·전남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2년간 광주·전남에서는 156건의 학교 성범죄가 발생했다. 5일에 한번 꼴로 일어난 셈이다.

광주의 경우 성추행 58건, 성폭행 17건, 성희롱 8건 등 총 83건이었고, 전남은 성추행 42건, 성폭행 16건, 성희롱 15건 등 73건이다. 전국적으로는 2357건이 발생했다. 학교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부분 학생으로, 전체 성범죄의 79%인 1995건이었다. 교직원인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103건이나 됐다.

배 의원은 "학생끼리의 성범죄가 심해지고 있다"며 "경우관 승진 인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최근 5년간 경우관 승진자 89명 중 85.5%가 본부(41.6%)와 서울청(39.3%), 경기·인천청(5.6%) 등 수도권 소속이었다. 반면 강원과 제주지역은 최근 5년간 경우관 승진자가 한 명도 없었고, 호남권은 3명, 충청권은 2명에 불과했다. 노용래 의원은 "경찰 인사가 편향적으로 이뤄지다 보면 인사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지역활동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각 상황인데도 교육당국은 인권 침해와 성차별적 요소가 담긴 성교육 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제대로 된 실태 파악과 함께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징계 유형별 현황' 국감자료에서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성범죄로 인한 전남 교원의 징계가 16건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징계 교원은 광주 73명, 전남 94명이었다. 이 중 성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전남 교원은 각각 16명과 5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교원이 6명으로, 충남과 더불어 4위에 올랐다. /이종행기자 galee@

호남 출신 총경 승진 갈수록 '좁은 문'

현 정부 들어 7.9% 그쳐

영남권 20.4%와 큰 격차

현 정부들어 총경 이상 경찰장부 승진인사에서 호남권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수도권과 영남권은 점차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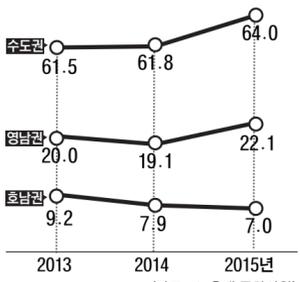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용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경찰서장급인 총경으

로 승진한 240명 중 62.5%가 본청(20.4%)과 서울청(31.3%), 경기·인천청(10.8%) 등 수도권 출신이었다. 영남권은 20.4%로 서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호남은 7.9%, 충청 5.0%, 강원·제주 2.9%에 그쳤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부 등 수도권 총경 승진자는 2013년 61.5%에서 2014년 61.8%, 2015년 64%로 점차 늘었다. 영남권 승진자도 2013년 20%에서 지난해 19.1%로 소폭 줄었다가

■ 현 정부 총경 승진 현황 (단위:%)



올해 22.1%로 증가했다. 반면 호남권은 같은 기간 9.2%에서 7.9%, 7.0%로 해가 갈

수록 감소했다.

경우관 승진 인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최근 5년간 경우관 승진자 89명 중 85.5%가 본부(41.6%)와 서울청(39.3%), 경기·인천청(5.6%) 등 수도권 소속이었다. 반면 강원과 제주지역은 최근 5년간 경우관 승진자가 한 명도 없었고, 호남권은 3명, 충청권은 2명에 불과했다.

노용래 의원은 "경찰 인사가 편향적으로 이뤄지다 보면 인사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지역활동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완지구 상가 매매

〈4층중 3층 / 즉시입주가능〉

85평

모아 A.P.T 앞 (6천세대)
상권 밀집지역
→ 월수익 180만

매가 3억 8천만
(보 3천, 용 2억5천만)

상가매매

- 상무지구 정연오피 상가 (상무지구 한국은행앞) → 매가 1억3천만(보 1천, 용 4천5백만)
- 광산구 월계동 1층 40평(1층 가격 최고 저렴) → 매가 1억5천만(보 800만, 용 8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7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림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임직업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4억5천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코너, 내부 깨끗) 월수익 45만 매매가 9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상무롯데마트 앞)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상무롯데마트 앞) 월수익 45만 매매가 8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 광양 상아아파트15평 (상기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7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월수익 95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2~5층 (사우나, 주택)
- 6~7층 (설계사, 건설사)

매가 14억 5천 (보 2억, 용 6억)

010-7384-7800 / 010-6670-9800